企業을 公開한 企業人이 갖는 問題點

金　仁　得

<차　례>

Ⅰ. 企業公開에 對한 見解 및 그 過程
Ⅱ. 去來處 및 從業員 特株制
Ⅲ. 企業人과 投資者 保護
Ⅳ. 證卷市場의 過熱과 그 對策
Ⅴ. 企業公開에 對한 바람직한 惠擇

평소에 尊敬하는 南財務部長官과, 企業經營을 指導하는 大學敎授들과 先輩 여러 企業人을 모신 가운데,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또한 悚懼스럽게 생각한다.

內資動員을 위한 政策的인 問題와 必要度는 이미 論議되었으므로 나는 다른 側面에서 企業公開過程 및 그 후의 몇가지 問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Ⅰ. 企業公開에 對한 見解 및 그 過程

아다시피 종래 企機人이 所有하고 있던 株式을 公開하는데 對하여 무엇인가 代價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점이 나의 솔직한 意見이다. 또 株式을 購買하는 一般 投資家에도 어떤 利得이 있느냐 하는 점에 問題의 歸結이 있다고 본다.

같은 物件을 賣買하는데 있어서 販賣者와 購買者 양쪽 모두 有利하게 하는데는 지극히 어려운 問題인줄 안다. 株式公開의 경우 政府當局의 뒷받침 없이는 절대로 解決될 수 없다고 본다.

처음 政府로부터 公開를 종용받았을때 公開하는 立場에서 利害得失이 무엇인가 檢討하였다. 피땀흘려 企業을 이룩했는데, 이것을 내놓으라 하니 城을 비워두고 나가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利得을 追求하는 意味에서 냉정히 分析하기 시작하였다.

利害得失에서는 確實히 이롭고 特히 稅制面에서 무엇보다도 많은 惠澤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時期까지 持續될 것인가, 적당한 時期에 적당한 方法으로 政策에 變更이 오지 않을까 하는 不安할 정도의 惠澤이 있다고 본다.

筆者：韓國스레트工業株式會社 會長

사실 끝까지 持續된다면 누가 안하겠느냐 하는 점이다.

저희 企業은 조그마한 企業으로 年間 賣上 30~40億에서 70~80億까지의 몇 개가 있는데 우선 조그마한 것부터 公開하였다. 試金石으로 試圖하였는데 과연 그대로 되었다. 그때 생각으로는 多少 不安도 느꼈다. 요즈음은 과열상태라서 30:1~40:1도 되지만 初創期에는 잘 되지 않으면 창피를 당할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가지 問題點을 안으면서 과감히 實施해 보았다.

Ⅱ. 去來處 및 從業員 持株制

法이나 制度는 運當하는 사람에 따라 效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평소에 經營學的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所期의 目的達成과 效果的인 運營方法을 여러 角度에서 檢討하기 시작한 결과 從業員과 去來處에 連結을 두어 公開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어 當時의 去來處 狀況은 스레이트業界가 상당한 競爭狀態에 있었고 有利한 條件이라면 競爭會社의 製品도 同時에 販賣하고 있었다. 따라서 去來處를 固定시키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聯關關係를 맺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株主라는 名目下에 권장도하고 여러 方法을 强求하여 그들이 株主가 되게끔 努力하였다.

그 結果 確實히 賢明한 것이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오늘날까지 그분들이 他商社로 부터, 他會社로부터 상당한 有利한 條件으로 購買協商을 提起해 와도 應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會社이니까 우리製品을 팔아야 한다는 밀착된 생각을 갖고 있다.

從業員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순한 俸給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會社라는 所有觀念을 滿足시키는데 큰 目的이 있었고, 또 그것이 確實히 좋은 것이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同時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들이 잘 모르는 여러 곳에서 십지어 外國에서까지 投資를 希望해 왔다. 그들이 株式을 所有하게 되었고 만날 때마다 鼓舞的인 이야기로 격려해주어 상당한 責任感을 느끼면서도 흐뭇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하게 되었고 보다 더 잘 運營해야 되겠다는 것을 切實히 느끼게 되었다.

다음에는, 株式을 賣却한 資金을 어떻게 使用하느냐가 重要한 問題로 되었다. 우리 會社는 自畵自讚인지는 몰라도 他人資本이 그렇게 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좀더 좋은데 活用하고 投資者의 期待에 어긋나지 않게 活用하는 길을 硏究하기 始作하였다. 여러 分野에 새로운 進出을 企圖하기도 하고, 또 進行中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큰 힘이 된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Ⅲ. 企業人과 投資者 保護

이와 같이 公開를 하여 物心兩面으로 큰 惠澤을 입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두번째로 韓國스레이트企業을 公開하였고 다음 東洋物産의 3企業을 모두 上場하였다. 이제 72年 韓國스레이트의 株式配當을 하여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問題이었다. 當時 額面 1,000원 짜리가 2,100원線에서 去來되고 있었는데, 配當稅를 除外해도 最少限 銀行定期預金利子率 12% 보다는 높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2,000원에 對한 14% 즉 額面의 28%를 配當하였다.

이와 같이 配當한 결과, 豫期치 못한 現象이 發生하였다. 즉 이 會社는 優良企業인가보다 하여 株式價格이 자꾸만 上昇하게 되었다. 굉장히 겁이나서 이렇게 오르면 누가 나중에 安心하고 投資할 것인가 걱정이 되었다. 비단 우리 企業뿐만 아니라 다른 會社의 株價變動을 본다면 1,000원 짜리가 7~8千원까지 오르는 것도 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株價는 그 企業의 財務構造 企業의 事業性, 經營者의 經營哲學 및 需要와 供給에 依하여 決定될 줄로 알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企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價格이 上昇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잘못된것 같아 不安을 안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年 證券波動으로 因하여 아직 一般 投資大衆은 不安이 가시지 않고 있나 염려된다. 그리고 公開를 한뒤 政府로부터 이정도의 惠澤을 받고 있는 立場에서 最少限 投資者에 對한 利益만은 保障해 주는 것이 企業人의 바른 姿勢요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責任이라고 判斷된다. 따라서 投資者의 利益保障이 大前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現在 法에 依하면 大株主 소위 創業者가 株式의 51%까지는 所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配當에 있어서 銀行의 例를 보면 利益이 안난다 해도 大株主는 희생을 하고 郡少株主에게는 最少限 10%까지의 利益配當을 實施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企業에 있어서도 一般 郡少株主에게는 이런 制度를 適用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本人 스스로의 생각을 해보았다. 적어도 投資家들이 確實한 利益保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强調하고 싶다.

Ⅳ. 證券市場의 過熱과 그 對策

앞에서도 말했지만 額面 1,000원 株式이 時價 8~9千원까지 上昇되어 去來되는 問題이다. 株式이 分散되어 大株主가 51% 以上을 占有하지 않은 企業이라면 問題는 다를 것으로 본다. 그러나 大株主가 51% 以上을 占有하고 있는 企業의 경우 그런 現象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나는 이런 現象을 投資家의 立場에서 時價에 操作을 하거나 他意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問題의 解決方案이 提示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 公認會計士의 證明書가 決算報告書에 첨부되게 되었다. 그러나 公認會計士의 報酬는 調査를 받는 會社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制度的으로 그 限界가 不確

實하다는 점이다. 報酬를 받는 사람이 주는 側의 調査를 한다는 것은 權威도 없거니와 거기에 公正을 取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의심된다. 따라서 公正하게 혹은 그 自體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國家에서 權威있는 機關이 企業의 經營分析을 定期的이고도 綿密하게 實施하여 一般 投資家에게 發表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市場에서 物品을 購買할 때 일일이 中央工業硏究所에 分析을 依賴하지 않고 그 會社와 政府의 監視監督을 믿는 것처럼 株式投資에 있어서도 權威있는 機關에서 믿을 수 있는 內容을 投資家에게 周知시킬 必要가 있다고 본다.

만일 不實企業이 發生하여 그 企業때문에 全體에 影響을 주고 여러 問題를 惹起시킨다면 이런 事故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權威있는 機關의 調査 硏究가 必要하다고 믿는다.

V. 企業公開에 對한 바람직한 惠澤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企業公開의 惠澤이 確實히 保障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 더 錦上添花格으로 要求한다면 金融面에서 좀더 積極的인 惠澤方法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政府는 現在 企業公開를 積極 권장하고 있으나 事實上의 利害關係를 比較하여 稅制面에서 뿐만 아니라 金融面에서 公開企業에 優先權이나 特惠를 賦與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公開를 안한 것과 하등의 差異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企業의 立場에서는 稅制面보다 金融面에서의 惠澤이 훨씬 重要하기 때문이며, 적어도 國策에 順應하여 內資動員에 協助하는 企業에는 金融面의 惠澤이 주어져야 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企業에서도 率先하여 應하지 않을까 하는 意見이다. 勿論 現在에도 實施되고 있으나 그 差異에 對하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資本市場에 對하여 말하고자 한다. 오즈음 상당한 과열상태에 있어 額面 1,000원짜리가 6~7千원에 去來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앞에서 말한 政府當局이나 權威있는 機關에서 엄밀히 調査하여 時勢操作이나 過熱狀態를 政策面에서 정할 수 있도록 바란다. 또한 그 機關에서 調査한 것이라면 그 調査機關이나 調査者가 財產面이나 精神面에서 責任의 所在를 分明히 밝힐 수 있는 方法을 아울러 强求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끝으로 이런 機會를 준 韓國經營學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